

도내 고교 기숙사 정원 감소

내년 18개 학교 기숙사 정원 100명가량 줄여 코로나·학생 개인 성향·학습 장점 약화 등 영향 수익 보전 위해 도교육청 지원비 9년 만에 인상

제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과거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어서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숙사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정원은 9월 기준 총 1877명이지만 실제 기숙 인원은 1152명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 5월 이후 학교 기숙사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실별 인원 제한을 없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2학기 입사 인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별 2023년 1학기 기숙사 입사 모집으로 이어지

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정한 모집 정원을 잠정 집계한 결과 1785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원에 비해 총 92명이 감소했는데 모집 과정에서 인원 미달로 그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4인실이 주를 이루는 기숙사 시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읍면 지역 모 고교는 4인실을 2인실로 운영하기로 하고 종전보다 절반 줄어든 기숙사 입사 모집 안내문을 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야간 자율학습이 선택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숙사의 장점이

약화된 점도 정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낡아 학생 불편이 잇따르면서 4인실을 3인실로 조정해 정원을 줄였다. 기숙사를 운영 중인 18개 고교 중에서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학교는 6곳이다.

이처럼 인원 감소로 수익자부담 방식인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년 동안 동결했던 기숙사 운영비 지원액을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 지원 예산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자가 감소하는 등 고교 진학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도 기숙사 이용률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기숙사 관리비 등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운영 지원비를 올리게 됐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겨울에 즐기는 유채꽃밭 2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유채꽃 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대졸 취업률 ‘전국 꼴찌’ 수준

작년 17개 시도 평균 67.7%보다 낮은 64.5%... 유지취업률도 낮아

지난해 제주지역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64.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54만929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 7개 항목의 취업 상세 정보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전년 대비 2.6%p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90.4%, 프리랜서 6.5%, 1인 창(사)업자 1.9%,

해외취업자 0.3%, 농림어업종사자 0.2% 순이다. 계열별로는 전체 취업률을 기준으로 공학(69.9%), 의약(82.1%) 계열 취업률이 높은 반면 인문(58.2%), 사회(63.9%), 교육(63.0%), 자연(65.0%), 예체능(66.6%) 계열 취업률은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82.6%)이 여성(76.8%)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9.8%, 비수도권 66.3%로 차이(3.5%p)를 보였다.

제주지역은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이 17개 시도 중 16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17개 시도 중에서 평균보다 취업률이 높은 곳은 서울(70.1%), 인천(70.9%), 울산(69.4%) 등 8개 시도에 그쳤다.

제주는 전년보다 취업률이 소폭(0.9%p) 올랐지만 전국(67.7%)·비수도권(66.3%) 평균 취업률을 밑돌

았다. 전문대학(70.6%), 대학(57.7%), 일반대학원(77.4%) 등 학제별 취업률 역시 하위권이었다.

2021년 2월 졸업자가 12월 31일 기준 취업해 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취업률은 전국 평균 79.7%, 비수도권 79.0%였다. 제주는 그보다 낮은 77.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대학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나 제주는 고용 구조가 취약해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도의 우수 기업 유치 시 지역 대학생들이 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등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사업장 환경오염 배출 위반 ‘부쩍’

제주시, 올해 86곳 115건 적발해 28건 고발

제주시는 올 한 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86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86개소에서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9건, 변경신고 미이행 3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3건, 운영일지 미작성 30건, 환경기술인

관련 위반 9건,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3건 등 1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 78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7건 등 105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6850만원을 부과했다. 2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4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2개소에서 42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로 비대면 점검이 이뤄졌던 때와 달리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점검이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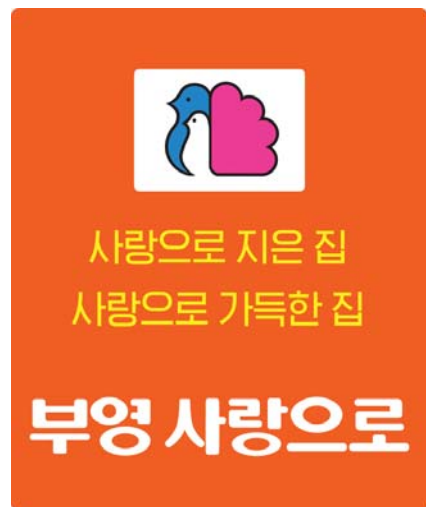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배출 업소에도 주요 점검 사항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콜센터는 128번(환경신문고)이다. 전선희기자

119구급장비 간편 설명서 제작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장비 간편 설명서를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에는 구급대원들이 중증 응급환자 처치 시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 장비 9종 22개에 대해 동영상 중심의 설명이 담겨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책자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 등으

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오 본부장은 “간편 설명서 제작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119센터에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 3개 모델에 대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상 설명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상민기자



“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민노총제주본부 기자회견

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원내 1당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될 때 그것을 바로잡는 책무는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망설이느냐”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 책임, 손해복탄 금지를 명시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자치분권 · 정정당당 · 도민행복 · 튼튼경제
- 생활활력 · 지속가능 · 신수놓음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